

## 노무현 대통령 자전 구술

1. 구술일자: 2001년 11월 6일
2. 구술장소: 서울 여의도 금강빌딩 자치경영연구원 사무실
3. 구술분량: 12분 02초 / 일부 공개
4. 주요내용: 노무현의 지도자론

국제 감각이라는 게 그렇게(부족하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죠. 외국어도 못 하고, 해외도 안 나가다녔고, 외국의 근사한 정치인들하고 사진 찍은 일도 없으니 까요. 그렇게 보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제관계를 감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를 보는 안목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평가를 하려면 [저와] 대화를 좀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서로 대화를 좀 충분히 하고 그렇게 [평가]했으면 좋겠다.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같은 사람은 27년 감옥에 있어도 세계적 안목이나 국제적 안목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감각은 몰라도 안목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오늘의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의 출발인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 같은 것은 유럽 통합을 이루어내고 그동안에 독일이 유럽의 번영에 편입되도록 하는 서방정책으로 독일의 역사를 반석 위에 올려놨다고 얘기하는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수상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유럽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이거든요. 유럽 역사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오늘의 유럽 역사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그 양반이 외국어를 한마디도 못했다는구만요, 아데나워 수상이. 외국어 실력이 [국제 감각을] 말하는 건 아닌 거 아닐까. 그러나 또 내가 잘 한다고 말할 수야 없겠죠. 내가 잘한다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그 평가가 정확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요]. 이러나저러나 그 부분은 [저를] 따라다니는 감정 요인이 될 겁니다. 공격을 계속 받을 것이고, 감정 요인이 될 것입니다. 국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사를 바라보는 안목이에요. 그건 철학에서 나오는 거죠. 인류 사회의 미래를 보는 역사관, 가치관과 역사관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뚜렷한 비전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재능은 크기에 맞는 무대에 올라가야 능력은 밝혀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재능이랄지 또는 역량은 무대에 비슷한 역할로 올려줘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역할을 아직 한 번도 맡은 일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준비는 많이 갖추어두고 있지요, 비전에 관해. 근데 비전과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비전은 화려한

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신뢰성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까지, 예를 들면 영남지역에 집회를 열어서 은근히 호남 반호남 감정을 부추겼던, 노골적으로 반호남 감정을 부추겼던 한나라당 총재가 동서화합을 외친다면 이것은 이미 신뢰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비전이라고 내놓는다면, 그건 이미 비전이 아니죠. 비전이 아니고 사람들을 실망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의 희망에 물을 끼얹는, 여기에 대한 희망에 물을 끼얹는 일 아니겠어요?

동북아 시대의 우리의 미래 비전이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남북 간의 교류, 큰 틀로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원활해지고 평화구조가 정착되는, 약 1억에 가까운 내수시장이 열리고, 7억 인구의 경제협력체 이런 등등 신동북아시대, 신동북아경제시대, 북방경제시대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남북관계의 화해를 핵심적인 키(key)로 하고 있고, 출발점이고, 그리고 한중일 관계에 있어서의 우호협력관계 이런 것이 필요한데 남북관계[에서] 사사건건 김정일의 사과, 김정일이 6·25에 대해서 사과하고 한국에 와야 된다고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요구조건을 내세우면서 [사과]해야 올 수 있다고 실현될 수 없는 요구조건을 내세워서 김정일이 서울에 올 수 없게, 도저히 올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한단 말이죠. 이런 아주 경직된 남북관계, 그래서 끊임없는 검증을 요구하는 냉전적 사고 이런 것 가지고 계속 불신을 조장하고. 불신과 적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조장하는 사람이 무슨 ‘신동북아경제 번영의 시대’ 이런 비전을 내놓으면 그건 그 또한 공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한테 이런 공허한 비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보따리 싸들고 당을 이 당, 저 당 옮겨 다닌 사람들이 역사를 얘기해왔던, 역사의 정통성을 얘기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친일 행적을 가진 사람이 단상에서 독립유공자 가족들에게 훈장 내려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를 얘기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겠네. 비전은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의 발자취에 수를 놓듯이 짜여져 있는 그 궤적을 따라가 보면, 궤적을 [통]해서 추론되는 그 가치지향성이 바로 비전입니다. 노무현이가 어떤 세상을 추구하는지 다 잘 알지요. 아직 그런 기회가 없어서, 남북관계나 한일관계나 세계관계에 대해서 별건 없지만 그 점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강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왔죠]. 어쨌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그의 과거 행적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비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전문가들은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중량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지만, 무슨 잘못이 있는

진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재 상황이라 인정을 하지요. 그래서 나도 중량감을 붙여볼까? 중량감을 어떻게 하면 붙을까? 생각해보니까 생각나는 게 다 하고 싶지 않은 일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어깨를 딱 버티고, 배와 가슴을 앞으로 딱 내밀고 목에 힘을 딱 주고 뚜벅뚜벅 걷는 일에서부터 표정, 보이는 그런 권위적인 표정이 필요하겠고 그럴더라고요. 필요하다면 남의 흉내도 좀 내야 되겠고 이런 등등이 좀 있는데. 일부 너무 소탈한 부분은 좀 고친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박한 품성을 오히려 가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보니 그런 거고 그 이외 중량감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도 모르겠고. 기껏 생각한다는 게 그런 것 몇 가지밖에 [없고], 권고하는 사람들도 그럴게밖에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겠다 싶고, 오히려 내가 그걸 바꾸려고 해요. 지도자가 무거운 것이 지도자가 아니다. 무게 나가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아니다. 클린턴(Bill Clinton)의 인상을 보고 난 중량감 있다고 느끼지도 않았고, 토니 블레어(Tony Blair)의 여러 가지 화면에 나오는 모습들도 그럴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전에도 얘기했던 경호원 없이 극장 갔던 [올로프 팔메, Olof Palme] 수상 얘기. 지난번에 TV에 한번 나왔는데 나라야 물론 조그마한, [인구] 3백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코스타리카의 대통령 청바지 입고, 헬리콥터 타고, 비서 한둘, 경호원 한둘 하고, 친구 겸 비서 비슷한 사람 한두 명 하고 활력 있게 헬리콥터 타고 현장을 돌아다니는 그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조금도 중량감을 느끼질 않았는데 그 나라들 다 좋은 나라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나는 친구 같은 대통령 그 이미지를, ‘내 친구 같은 대통령!’ 그게 더 좋은 나라다. 난 그렇게 앞으로 밀고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링컨(Abraham Lincoln)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한국인, 한국은 앞서서 아함(하품)하는 시대가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의 시대, 진취적인 변화의 시대에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에 도전해나가는 도전의 시대다. 변화의 시대다. 거기에 맞는 도전과 변화, 그러면서도 정치라는 뜻은, 결국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서를 하나로 체계 있게 통합해나가는 그 중심점에 정치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엔 뚜렷한 철학과 역사의식, 신념 이런 것을 갖춘 다이나믹한 지도력 이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중량감보다는. 링컨에서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중량감 있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무슨 더글러스(Stephen Arnold Douglas · 1858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링컨과 경쟁해 승리한 현직 의원)인데 중량에 있어 [링컨이] 훨씬 부족했고, 세련미에 있어서도 훨씬 부족했죠. 시골뜨기,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된 사람. 끊임없는 도전, 그때까지 도전해왔던 그의 도전적 삶으로 받쳐지는 끊임

없는 도전정신, 패기, 도전과 성공을 거치면서 쌓아온 패기와 자신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패기와 자신감, 끊임없는 도전정신. 정직하고 성실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하면서 결국 하느님의 나라라는 사랑을 실현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가치를 지향한 뚜렷한 철학과 신념, 성실한 인간성의 바탕 위에 쌓아올려진 그의 철학적 신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직도 미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된 시대를 이끌어온 것 아니겠습니까?